

내년 1월 전국서 3만 가구 분양...“총선 앞두고 물량 감소”

수도권과 지방 각각 1만303가구와 1만3024가구
“1월 ‘비수기’...지역구 개발 공약에 아파트값 영향”

내년 1월 분양시장의 공급물량이 이달과 비교해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양에 소극적인 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전국 분양 공급물량은

29곳, 3만1150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만3327가구로, 수도권과 지방의 일반 분양 물량은 각각 1만303가구(44.2%)와 1만3024가구(55.8%)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12월) 물량(2만7944가구)과 비교해 16.5%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2022년) 1월 물량(2만2375가구)과 비슷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613가구(11곳·전체 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 4690가구(4곳·20.1%), 광주 4045가구(3곳·1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물량은 없다. 수도권에서는 DL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방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설이 광주 북구 매곡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중의공원’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57㎡, 총 1466가구 규모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2개 단지, 총 2667가구의 대단지

로 지어지는데 이 중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가구로 구성된 2단지 우선 분양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내년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마케팅이 어려운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 시즌에는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쏠리다 보니 분양이 흥행하기도 쉽지 않고,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으면 분양 일정도 잡기 쉽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승권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 FE·갤럭시 탭 S9 FE+’ 국내 출시

“1020 위한 강력한 사용성”...쓰던 제품 반납 시 보상



삼성전자가 내년 1월3일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9 FE’와 ‘갤럭시 탭 S9 FE+’를 국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제품은 중·고등·대학생의 수업, 강의, 영상 시청 도구로 활용하기에 좋다. 실제 펜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뛰어

난 필기감을 제공하는 ‘S펜’을 포함해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삼성 노트 ▲굿노트(GoodNotes)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EX ▲루마퓨전 ▲아크 사이트 등 S펜을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앱도 기본 탑재돼 있다.

‘갤럭시 탭 S9 FE’는 277mm(10.9형), ‘갤럭시 탭 S9 FE+’는 315mm(12.4형)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최대 90Hz의 주사율 자동 조정 기능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주는 비전 부스터(Vision booster) 기능을 탑재해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시리즈 최초로 IP68 등급 방수·방진을 지원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더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다. ‘S펜’도 IP68 등급을 지원한다.

대용량 배터리(갤럭시 탭 S9 FE 8000mAh·갤럭시 탭 S9 FE+ 1만900mAh)를 탑재해 사용하는 장시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두 모델 모두 스토리지 확장을 위해 최대 1TB의 마이크로 SD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9 FE’와 ‘갤럭시 탭 S9 FE+’는 Wi-Fi 모델과 5G 모델로 각각 출시되며, 가격은 세부 사양에 따라 62만9200원, 79만9700원부터다. 색상은 두 모델 모두 민트, 라벤더, 그레이 3종이다. 삼성닷컴과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는 기본 색상 외 실버 색상이 추가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FE 라인업 최초로 ‘트레이드 인(Trade-i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갤럭시 탭 S9 FE’와 ‘갤럭시 탭 S9 FE+’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을 반납하면 제품의 중고 가격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보상해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탭 S9 FE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향상된 편의성으로 학업, 업무, 취미, 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 경험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제품”이라며, “2024 갤럭시 아카데미와 트레이드 인 행사 등 풍성한 혜택과 함께 갤럭시 탭 S9 FE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4 갤럭시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갤럭시 탭 S9 FE’와 ‘갤럭시 탭 S9 FE+’ 뿐 아니라, 8월 출시된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서선욱기자

최강 한파인데 비키니·반팔 잘팔린다, 왜?



전국에 영하권 강추위가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여름옷 매출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따뜻한 국가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난 여파로 분석된다. 25일 패션 플랫폼 W컨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팔, 비키니, 슬리퍼 등 여름옷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늘었다. W컨셉 관계자는 “영하권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열을 연말 휴가 찬소로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국가와 따뜻한 동남아시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관련 상품 매출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대표 여름옷인 반팔과 숏슬츠 매출은 각각 52%, 17% 신장했다. 스트라이프 디자인이나 플라워 패턴 등 휴양지에서 인기 좋은 반팔과 데님 팬츠, 트레이닝복처럼 활동성이 높은 짧은 바지가 인기로 나타났다.

물놀이에 필요한 비키니, 비치 액세서리 매출도 16% 증가했다. 한 여름 날씨를 보이는 휴양지 여행객이 늘면서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비키니와 비치타월, 비치햇 등 액세서리 수요가 높았다.

물, 슬리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여행지에서 가볍고 편하게 신기 좋은 슬리퍼 디자인이 인기를 끌었다.

휴가에 필요한 캐리어, 파우치 등 여행용품 매출은 77%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대폭 늘었다. 특히 24~28인치 중대형 캐리어가 55%나 늘었는데, 장거리 여행을 대비하는 고객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W컨셉은 오는 26일까지 연말, 연초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 ‘트래블샵’ 행사를 진행한다. 휴가철 고객 수요에 맞춰 키오, 이노베이터 캐리어 등 400여 종의 여행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슬비기자

“맞춤영어 학습패키지”...뇌새김, ‘더주니어’

스마트 어학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운영하는 위버스마인드는 겨울 방학을 앞두고 어린이를 위한 영어 학습 패키지 ‘더주니어’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더주니어’는 신규 콘텐츠 ‘주니어리딩북’과 ‘처음영어’, ‘주니어영어’ 등 총 8개의 뇌새김 주니어 학습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또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CEFR)에 기초해 수준별 체계적으로 제작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초등 필수 영단어를 별도로 표기해 학교 수업과 연계성도 높였다.

주니어리딩북은 뇌새김이 새롭게 선보인 영어 동화 학습 콘텐츠다. 이층우화 동화책과 워크북 각 10권, 학습에 특화된 전용 앱이 함께 구성돼 있다. 주니어 레벨에 맞게 쓰인 영어 동화책을 읽고 나서 워크북과 전용 앱을 통해 리



뷰와 심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에 대한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이층우화에 대한 다양한 퀴즈를 풀면서 동화 속 어휘와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오유나기자

3%대 고물가 흐름 속 연간 물가 얼마나 될까

통계청, 오는 29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3%대 고물가 흐름 속에 연간 소비자물가가 어디까지 치솟았을지 주목된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대신 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산업지표도 반등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29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물러코스터를 탔다. 작년보다 이어진 고물가 행진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1월 4.7%로 시작한 물가 상승률은 7월 2.4%까지 상승폭이 둔화하며 하향 안정세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농식품 가격 폭등세로 8월 3%대(3.4%)로 올라섰다. 지난달 상승세가 한 풀 꺾이긴 했지만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를 어렵게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가

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12월 소비자물가가 역시 상승폭이 크게 둔화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한 탓에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정부가 전망한 3.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연간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해 목표수준(2%)을 넘어섰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앞서 통계청은 28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다. 경기가 좀처럼 기저를 꺼지 못하면서 전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3개월 만에 일제히 감소한 바 있다.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쪼그라들었다. 회복세를 보이던 반도체 증가세가 주춤한 탓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어 등락을 거듭했다. 두 달 연

속 증가세를 보이던 투자도 3.3%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든 ‘트리플 감소’에도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p) 상승해 일말의 기대감을 낳았다. 이 같은 전망이 산업지표에 반영됐는지 주목된다.

27일에는 ‘10월 인구동향’과 ‘11월 국내인구이동’이 나온다. 출생 관련 통계치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올해 전체 신생아 수를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2명 인폭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대급 저출산 흐름이 지속되면서 10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도 2만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29일 ‘11월 국제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10월까지 국제수입은 5000억원 더 건지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기준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누계 국제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2%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전망치를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하면서 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시스

SSG닷컴, 가공식품·일상용품 ‘반값’



SSG닷컴이 그룹사 통합 쇼핑 행사 ‘2024 데이원(DAY1)’을 앞두고 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을 최대 반값 수준에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가공식품 주요 품목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같은 상품군을 2개 이상 구매 시 최대 50%

할인한다. 우동, 떡볶이, 피자 등 가정간편식(HMR)과 식용유, 파스타 소스 등을 대표 품목으로 준비했다. 스낵과 비스킷 등은 2+1 혜택을 제공한다.

일상용품 행사는 1+1 혜택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주요 생활용품 브랜드의 샴푸, 트리트리트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선보인다. 칫솔, 치약과 주요 제지 브랜드 물티슈 대표 품목도 만나볼 수 있다. 면도기와 면도날은 동시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30일부터는 데이원 본 행사를 진행한다. 뉴시스